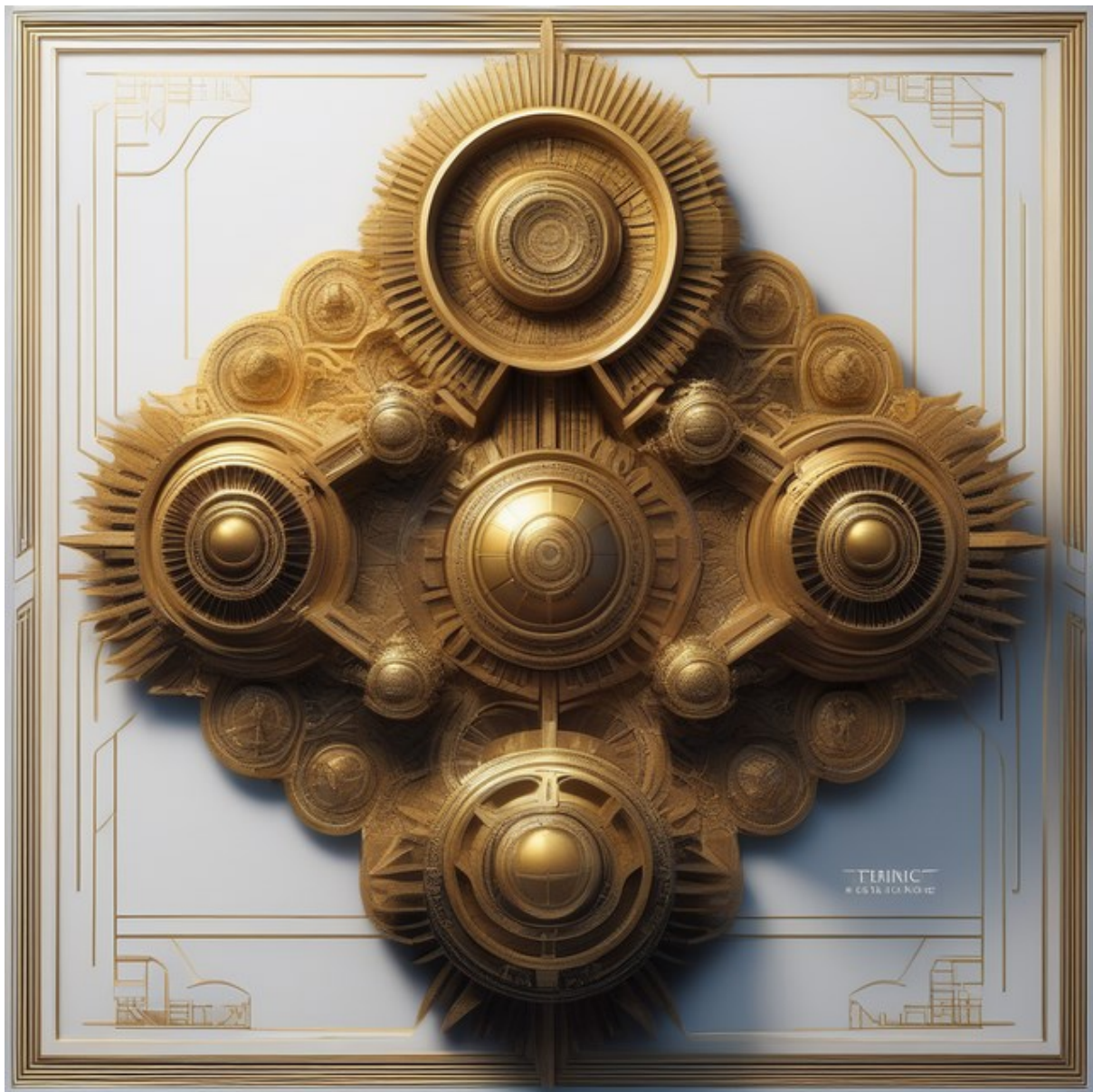


Asling Vita Scenario_Ver.novel_



목차

Asling Vita Scenario_Ver.novel_.....	1
목차	2
Chapter 1 집.....	3
Chpater 2 골목길	21
Chpater 3 포탈홀	25

Chapter 1 집

“오, 에이시 정말 미안하다”

오랜만에 맑게 갠 하늘은 청명함을 뽐내고, 햇살은 부드럽게 집안을 덥혀준다.

푸른 여름의 색이 점차 노랗고 붉게 변해가는 지금, 소녀는 차마 듣기를 원하지 않았던 말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다.

“에이시,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그리 풍족하진 않잖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니 아빠로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구나.”

“ ”

오랜만의 나들이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건 이미 한차례 한 달이나 뒤로 미뤄진 약속이었다.

그 말은 소녀의 아빠가 하는 대사가 꽤 익숙한 말이란 뜻도 된다.

소녀는 혹시나 했던 '기대'라는 마지막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분명 그것은 다시 피어오르지 않을 것 같았다.

소녀는 그녀의 엄마를 꼭 닮은 눈동자로 아빠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미 아빠의 눈 속에 그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소녀가 보기에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나갈 준비를 하는 그의 모습은 꼭 누군가 계속 채근하며 재촉을 당하는 듯했다.

행복이란 것은 부서지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걸, 이제 고작 9살이 넘은 소녀는 깨달을 수 있었다.

분명 소녀의 아빠는 무척이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었다고 기억한다.

항상 그녀를 꼭 안아주던 엄마가 4 살 무렵 사라진 이후 매일 울면서 외로워하던 소녀를 대신 안아주면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던 기억을 소녀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였을까?

따뜻하기만 했었던 아빠의 얼굴은 점차 창백해지고 어두워져 갔다.

눈가의 주름은 짙어가는데 미소는 점차 흐려져 갔다.

“오, 벌써 시간이... 미안하다 에이시, 그래도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손목시계를 확인하고는 한층 어두워진 안색의 아빠가 드디어 소녀를 마주한다.

소녀는 아빠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얼굴에 떠오르려고 하는 ‘실망’이란 그림자를 애써 지우려 노력한다.

그녀는 착한 아이기 때문에 결코 어른에게 고집 부리며 생떼 부리지 않는다.

그것은 무척이나 숙녀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옆집에 아만다 씨가 말씀 해주셨다.

“그래, 이해해 줘서 고맙구나. 다행히 옆집의 아만다 씨가 돌봐 주신다고 하셨으니 조금 있으면 오실 거란다.”

소녀의 노력이 통했는지, 아니면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던 상관없이 없었는지 소녀의 아빠는 고개를 틀어 문밖으로 향했다.

하지만 소녀는 이미 알고 있다.

옆집에 사는 할머니, 아만다 씨는 무척이나 깐깐하고 엄한 분이라 소녀와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오늘도 찾아와서 몇 마디 잔소리들을 늘어놓고, 집 밖으로 나서지 말라 엄포를 놓은 다음 집으로 돌아가실 것이다.

그것이 지극히 효율적이니까.

“...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빠.”

차마 소녀가 용기를 쥐어짜서 뱉은 말이 소녀의 아빠에게 닿았을지는 모르겠다.

그녀의 아빠는 벌써 문을 열고 나가버렸으니까.

아빠가 바쁜 이유는 소녀 때문이다.

주변의 어른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그렇게 이야기 하곤 했다.

당연히 소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건넬만큼 오지랖이 넓거나 가까운 사이인 이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소녀가 지나가면 들으라는듯 큰소리로 속삭이며 소녀에게 던지시 전할 뿐인 이야기다.

어쩌면 소녀 스스로 환청일 지도 모른다.

흔치는 않지만 편부 가정의 아이와 그 집안을 신경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아니니까.

적어도 소녀가 생각하기엔 그랬다.

소녀는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야 아빠가 옛 모습과 여유를 되찾고 소녀를 바라봐 줄 것 같았으니까

그리고, 아빠가 자리를 비워 소녀 홀로 집에 남게 되면 찾아오는 저 깐깐한 할머니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 해가 뜬지 얼마나 지났는데, 스스로 씻지도 못하는구나! ”

옆집의 아만다 할머니는 아빠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멍하니 아빠가 나간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있던 소녀를 보고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시선은 부스스한 소녀의 머리결과 아직 갈아입지 못한 잠옷을 보며 짜증이 일어나는 것을 참지 않았다

비록 그녀는 소녀의 아빠로부터 소녀를 돌봄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받고 있다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즐기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짜증이 얼굴에 꽃피우며 소녀의 눈앞에는 동화 속 마귀 할머니 자리잡게 된다.

“ 당장 그 더러운 머리와 몸을 닦지 않으면 옷을 전부 벗기고 쫓아내주마! ”

제 아무리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를 알몸으로 쫓아낸다면 아동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다.

그것을 소녀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물론, 사실을 알았다 한들 소녀가 저 무서운 마귀 할머니에게 반항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표현이 무척 강압적이고, 협박과 함께 하고 있지만 최소한 그녀가 요구하는 사항이 불합리하진 않으니까.

소녀는 애써 스스로를 타이르며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갔다.

아빠가 바빠진 이후로 스스로 몸을 닦는 행위에는 무척 익숙해졌다.

당연 아이와 직접적인 접촉을 좋아할리 없는 아만다씨가 소녀를 씻겨줄리 없었기에, 그 과정을 익히는 것은 서슬퍼런 지시속에서 익숙해져야 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어릴적 엄마가 있었을때, 소녀의 머리는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였다. 소녀의 엄마는 그런 소녀의 머리를 정리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혼자 씻는것에 익숙해질 무렵이 되어서 소녀는 짧은 머리가 훨씬 잔소리를 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줄기 남은 소녀심에 단발로 타협한 소녀는 가볍게 물기를 털어내면서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닮은 머리색과 어머니를 닮은 눈동자는 분명 단란했던 3인 가족을 진하게 그리고 있었지만, 남은 건 오직 소녀 혼자 뿐인 기분이 들어 조용히 고개를 틀어 거울의 비친 상을 밀어냈다.

“ 네 나이가 벌써 9살이다. 그럼 숙녀다운 몸 가짐을 바로 할 필요가 있는 법! ”

화장실에서 나오기 무섭게 아만다씨의 목소리가 소녀의 귀를 후려했다.

그녀는 어디서 꺼냈는지 모를 가느다란 나무막대기로 소녀의 옷 여기 저기를 쿡쿡 찔렀다.

“ 내가 몇 번을 주의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옷매무새가 단정하지 못하는구나! ”

나름 신경을 썼다지만 그것이 어디 눈 높은 어른에 맞추기 쉬울까?

찢린 부분들을 다시 정돈하면서 가만히 눈치를 보았다.

별 다른 반항적인 느낌이 없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약속이 있었던 것일까?

아만다씨는 이쯤이면 되었다는 느낌으로 콧김을 뿜더니, 이내 다시금 부리부리한 눈을 하며 소녀에게 빵이 담긴 바구니 하나를 주었다.

“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이쯤만 하고 떠나마, 점심은 이정도로면 충분 할 거 같구나. 오후에 다시 한번 보러 올테니, 그때 지금처럼 단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다음엔 방에 가둬 놓을 줄 알아라! ”

그녀는 반쯤 으르렁 거리는 발음으로 소녀에게 경고한 뒤 집을 나섰다.

오늘은 다행히도 이정도로 마무리 된거 같다.

소녀는 내심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가끔 저 마귀할머니는 크게 짜증이 난 상태일때 몇시간이고 이것저것 트집 잡으면서 소녀를 괴롭히곤 했다. 가장 억울한 것은 그것이 딱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그 기준이 어른의 눈높이에 해당하는 것이기기에 아이가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하는 소녀로서는 감히 반박할 수 없는 지적들이었다.

바구니에는 고작해야 작은 빵 2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숙녀는 먹는 것도 조신해야 하며 많은 것을 먹어서는 안된다는 아만다씨의 철학이 담겨있다.

물론 명분일 뿐이고, 이 바구니는 아빠가 온 뒤에 회수해 가는 것을 보면 그 본의가 쉽게 보인다.

작게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아직 온기가 살아있는 부드러운 빵을 한 입 씹어 먹는다.

날씨도 좋은 주말의 아침이지만, 이곳 주변에 그녀 또래의 아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소녀도 학교를 가기 위해선 스쿨 버스를 타고 1 시간은 가야 했다. 그리고 이 근처에서 그녀와 함께 버스를 타는 이들은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 몇 명이 전부였다. 그나마도 내년이면 모두 졸업 예정자들 이라서 어쩌면 소녀 혼자만 타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녀 1 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줄지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좁지는 않지만 그래도 넓지 않은 집 안에 적막함이 찾아온다.

분명 햇빛이 따스하게 들어오는데도 서늘한 기분이 소녀를 감싼다.

이젠 이것이 외로움이란 감정의 편린임을 소녀는 깨닫고 있었다.

똑 똑 똑

정확한 박자에 맞는 노크음이 가볍게 들려왔다.

소녀는 깜짝 놀라서 현관문을 바라봐야 했다.

이 시간에 더이상 이 집에 방문할 사람은 없을 것이었다.

하물며 저렇게 정중하게 노크를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은 소녀가 이제껏 살면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다.

한 동안 멍하니 바라봐서 었을까?

소녀가 환청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할 무렵 노크 소리가 다시 한 번 울려퍼졌다.

똑 똑 똑

마치 기계가 치는듯 정박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이것이 소녀에게 현실임을 자각시키게 하였다.

“ .. 누구 신가요? ”

그러나 그녀는 아만다씨의 도움? 으로 숙녀된 몸가짐을 익혀야 했다.

결코 놀라거나 소리치는 법 없이 차분하게 상대를 묻는다.

그녀는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낯선 상대에게 문을 열어주는 실수는 하지 않는다.

비록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면서 평소보다 작게 나왔을지언정, 소녀의 대응은 침착하고 정확했다

“지금 아빠는 계시지 않습니다. 아빠에게 불일이 있다면 나중에 찾아와 주세요”

아만다씨의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외운 매뉴얼에 맞춰서 정확하게 대응 할 수 있었다!

소녀는 짐짓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은 아빠 아니면 아만다씨만 방문하는 집이어서 소녀는 처음으로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었다.

“오, 나는 에이슬링 비타 양, 당신에게 불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에 관한 일로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소소하게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던 소녀의 귓가로 들린 건 어딘지 모르게 바짝 메말라 있는 것 같은 남성의 목소리였다.

그 말투는 무척이나 정중했으며, 항상 아만다씨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신사의 화법 같았다.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는 목소리였다.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었다.

어쩐지 집안의 온도가 더 내려간 느낌이 들었다.

“죄.. 죄송하지만, 저는 모르는 분과는 대화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느낌이 들었다.

소녀는 최대한 용기를 내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렇지만 상대에겐 그 용기 어린 의사가 닿지 않았던 것 같다.

“흠, 이 이상의 실랑이는 불필요할거 같군.”

어쩐지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세상에 색이 모두 빠져나가는 듯한 풍경이 찰나의 순간 소녀의 시야를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소녀가 그 모습에 잠시 눈을 깜빡인 순간.

그. 것. 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에이슬링 비타양, 저는 당신의 아빠되는 사람의 시간을 관리해주는 시간관리 주식회사의 TimePlanner 에이, 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인 남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짙은 회색의 양복과 같은 색상에 빗살무늬가 그려진 넥타이, 살짝 엮듯이 쓰여진 중절모.

손은 하얀 장갑을 착용했으며 한손에는 무척 무거운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들지 않은 손으로 명함 한 장을 소녀에게 내밀고 있었다.

소녀는 그의 얼굴을 보려고 노력 했지만, 어째서인지 그 인상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았다.

그것, 회색 남자는 마치 인간을 흉내 내고자 하는 무언가를 보는듯 위화감이 들어 소녀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명함을 받기는 커녕 뒷걸음질 치며 경계하는 소녀의 모습에 회색남자는 자연스럽게 내밀었던 명함을 회수하면서 자신의 손목 시계를 바라봤다.

소녀는 얼굴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으면서도 회색 남자가 웬지 짜증을 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아, 정말 수지가 안 맞는 일로군.”

그는 짐짓 투덜거리면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고선 방금까지 소녀가 식사하던 식탁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가벼운 손짓으로 바구니를 옆으로 치우더니 노트북을 열어 무언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소녀는 무서웠지만, 지금 상황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암전히 그의 뒤를 쫓아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려 노력했다.

“단도직입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이슬링 비타양, 당신은 당신의 아빠인 워렌 비타의 시간관리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행한 그래프를 소녀에게 보여주면서 차가운 목소리를 말을 걸었다.

“그는 좀 더 효율적인 시간관리를 위해서 저희 회사와 계약하여 이전에 비해 비약적인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에서 계산한 이상적인 수치에 비해 아직 까지도 미진한 구석들이 보여집니다. ”

아직 9 살 밖에 되지 않은 소녀였지만, 눈 앞의 그래프는 한 눈에도 알아보기 쉬웠다.

회색의 남자가 가르킨 곳에서는 우상향으로 뻗어나가는 그래프와 비슷하게 진행하다 가로선과 평행하게 이어지는 그래프 2 개가 그려져있을 뿐이었으니까.

“그리고 저희 회사는 그 원인을 당신으로 지목했습니다.”

“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회색 남자의 단언에 소녀는 진실이면서 거짓인 대답을 반사적으로 하게 되었다.

아빠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자신이다.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진실로 느껴진 탓이었다.

“현대에 있어서 시간은 곧 자본입니다. 워렌씨는 더 많은 자본소득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회사와 계약을 맺었죠. 그러나 그는 우리가 권고한 플랜을 100%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지극히 사무적인 어조로 뱉어지는 내용들은 소녀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회색 남자가 이야기 하는 내용에는 소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들도 섞여있었다.

머뭇거리는 소녀를 향해서 회색 남자는 자리에 일어서 한층 압박을 주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그가 권고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에 당신이 있었습니다.”

회색남자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속해서 자신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짜증이 점차 진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2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꺼낸 서류 한 장과 펜을 꺼내 소녀에게 내밀었다.

“하나는 그곳에 서명하고 당신도 저희 회사의 고객이 되는 길입니다. 저희 회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회사로, 수 천만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회색 남자의 어투에는 기묘한 웃음기와 자부심이 들어갔다.

이전까지의 사무적인 태도와는 꽤 다른 느낌이었다.

“우리는 당신이 살면서 낭비하는 모든 순간의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국 당신에게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전달하는 사도였고, 업계의 권위자가 되었다.

소녀는 어쩐지 지금 자신이 티비에서 보던 홈쇼핑을 코앞에서 시청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했다.

그 만큼 그의 말은 묘한 속삭임이 여운처럼 남았고, 그것은 끈적이는 잼과 같이 소녀의 정신을 흔들려 들러붙었다.

“자본주의의 세상에서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돈이 부족하다는 증거지요. 따라서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위해선, 자본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쏟아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회색의 남자는 가방에서 또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철 되어있는 서류들이 가득했다.

개중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서류 한 장을 소녀에게 보여준다.

지금 소녀 앞에 놓여진 서류와 거의 동일 한 양식의 서류의 가장 밑에는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아빠의 이름이 휘갈겨 쓰여 있었다.

“워렌씨 또한 미래에 찾아올 행복과 여유를 위해서 이를 동의하셨습니다. 그에겐 그것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아아, 소녀는 그때 깨달을 수 있었다.

아빠가 항상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된 이유는 거기에 있었다.

아빠는 돈을,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정신 없이 바빠진 것이었다.

그리고 아빠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한 이유는 분명...

“그리고 그 이유에는 명백하게 에이슬링 양, 당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을 마치면서 아직까지 멍해 보이는 소녀에게 이름이 공란으로 비워진 서류를 다시금 내밀었다. 어느 사이 펜이 심이 튀어나온 채 소녀의 앞에 있었다.

“... 서명하게 되면 저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건가요?”

소녀는 펜을 손에 쥔 상태로 회색 남자에게 물어봤다.

무언가 서명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 같았다.

사실 소녀는 아직도 지금의 현실이 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피부를 돋아나게 하는 섬뜩한 한기는 왜 인지 정신차리라고 소녀를 일깨우는 것만 같았다.

“오, 걱정 할 건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권고하는 스케줄에 맞춰서 일상생활을 보내면 됩니다.”

소녀가 거의 넘어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회색남자는 살짝 톤이 올라간 상태로 친절하게 안내했다.

“에이슬린 양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한다고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저희 회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아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1 분 1 초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십시오. 저희는 당신이 아낀 시간 만큼을 가져가 돈으로 바꿔 드립니다.”

“돈을 주신다고요?”

“오, 돈으로 바꿔 드린단 표현은 저희가 돈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가 맞습니다.”

회색 남자의 괴변은 계속되었다.

“이를 테면 에이슬린 양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 내용을 집중해서 듣거나, 쉬는 시간에 해당 내용을 복습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친구들과 대화하거나 가볍게 장난을 치는 등 해당 시간을 함부로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척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공부를 하게 된다면 분명 당신은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등한시한다면 하루에 간신히 식사만 할 수 있는 돈벌이인 일용직들만 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하교를 한 다음에는 어떨까요? 당신이 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집 앞 마당을 걷다가 돌멩이를 줍는 일? 해당 돌멩이가 보석 원석이라면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럴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집에서 인형과 쓸데없는 대화를 하는 일? 당신이 홀로 집에서 멍하니 보내는 그 순간순간들은 그 자체로 당신의 아빠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순간마다 당신을 걱정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마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값싸지만 오랜 시간 당신의 공부를 도와줄 학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모든 시간을 학원이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서 행동하며 일체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신을 홀로 뒹아 해서 신경을 써야 했던 워렌씨도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쩐지 그의 시선이 소녀가 펜을 들고 있는 손을 향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의 말은 조곤조곤 하면서 명확한 발음으로 내리 꽂힌다.

소녀는 생각한다.

그의 말이 틀리다.. 고만은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만 웬지 긍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문득 소녀는 어릴 적 엄마가 들려줬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에이시, 에이시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때 소녀는 뭐라고 답을 했던 걸까?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다.

소녀의 답을 들었던 엄마가 웃으며 들려줬던 말이 아련하게 기억날 뿐이었다.

“엄마는 에이시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은 지나가면 잡을 수 없고 미루면 멀어지기만 하거든. 기억 하렴 에이시, 지금 이 순간 순간을 가장 행복 할 수 있게 노력한다면 넌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 란다.”

이젠 곁에 없는 엄마지만.

엄마와의 추억은 소녀의 보물이었다.

소녀는 펜을 내려 놓고 회색남자를 바라봤다.

“다른 하나는 뭔가요?”

“ ... ”

회색 남자는 소녀의 물음에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답변을 바로 돌려주지 않았다.

가만히 소녀를 바라보던 그는 의자에 다시 앉으면서 소녀와 마주했다.

“남은 하나는 ... 음, 이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방안입니다만”

그는 짜증이 올라오는 목소리로 자신의 손목시계를 확인한다.

어쩐지 그 짜증에는 초조함도 섞여 있는 것 같았다.

그건 오늘 아침 소녀의 아빠에게도 나타났던 감정이었기에, 소녀는 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에이슬린양 ... ”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 쳤다.

무언가 위험하다.

“당신, 아니 너를 제거하는 수 밖에 없지.”

그 말은 이제까지 들은 그 어떤 말보다도 차가웠다.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다. 나와 계약한 고객들이 생각보다 일찍 죽어버렸어. 기껏 새로 계약한 고객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지.”

이제까지는 존댓말을 유지하면서 소녀를 존중해주는 듯 했던 그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소녀가 고객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였지만.

무언가 각오를 한 것으로 보였다.

서서히 일어나면서 회색 사내가 소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소녀는 점차 뒷 걸음치면서 사내에게서 멀어지려 노력한다.

“인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소비 해야하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을 벌써 10 분 이상 낭비해야했어!! 10 분이나!!!”

그의 연성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이제는 고향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뱉는 말은 절규와도 같았다.

“어차피 어린 아이의 시간은 그리 생산적이 않지. 그래 진작 이랬어야 했다. 잠재적인 생산량이 많다고 한들, 나에게 그런 여유따위 있을 리가 없는데!!”

그의 얼굴이 한층 일그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쩐지 가끔씩 아빠가 마당에서 하늘을 보며 피우는 담뭃불처럼
그의 얼굴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붉어지며 연기가 피어 오르기 시작했다.

“ 자, 이리 오렴. 순순히 사라져서 나에게 시간을 줘!!!!!! ”

회색 남자는 집어 삼킬 것처럼 소녀에게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소녀는 황급하게 회색 남자를 피해서 도망을 쳐야만 했다.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저 남자에게는 시간이 부족 한거 같았다.

그렇다면 소녀에게 남은 방법은 남자가 말한 시간이 다 될때까지 도망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으리라.

다행일까 불행일까? 소녀의 집은 어른이 마음 놓고 활동하기 좋은 공간은 아니었다. 집은 좁았고, 그 가운데 가구는 많았다.

소녀는 작은 몸집을 이용해 가구 사이를 넘나 들어야 했다.

회색 남자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소녀를 보며 너 흥분해 날뛰기 시작했다.

“모두 너 때문이야! 네 아빠가 저지경이 될때 까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그렇게 모은 시간을 우리에게 바치는 이유도!! 그럼에도 우리와 약속한 시간을 다 주지 못하는 이유도!!”

회색 남자의 맹목적인 비난이 소녀에게 날아간다

“너만 없어지면 모든게 해결된다!! 네 아빠는 너를 생각할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바칠거야! 나는 그럼 그 시간만큼 더 살 수 있어! 그래!! 난!!!! 살아야 한다고!!!!!! ”

회색 남자의 절규는 점진적으로 단어의 수준이 낮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마치 소녀가 어디로 이동하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예측된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다간 소녀가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만 같았다.

그래, 시간 문제였다.

“아.. 안돼...”

회색 사내의 움직임이 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점차 떨어지면서 마치 녹슨 인형이 움직이듯 삐걱인다.

붉게 물들었던 얼굴부분은 어느새 처음보다 하얗게 질린 잿빛이 되어 가루처럼 부스러지고 있었다.

“시..시간이... 필요...ㅎ..”

억겁과도 같았던 시간이 흐르고.

그가 갖고 있던 노트북과 가방, 그 속에 있던 모든 서류까지 한순간의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증명해 주는 것은 오직 그가 있던 자리에 남은 잿가루 조금과 손목 시계뿐.

소녀는 조심스럽게 손목시계를 손으로 주웠다.

소녀는 처음 보는 형태의 손목 시계였다. 그것은 여러 디지털 숫자가 표시되었다가 암전되었는데, 그 모습이 요 근래 새로 나왔다는 스마트폰과 일견 닮아보였다.

소녀는 무의식 적으로 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가져다 대었다.

그러자 시계는 순식간에 그녀의 손목에 맞는 크기로 변하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감싸 안았다.

놀란 소녀는 시계를 풀기위해서 안간힘을 썼지만, 손목시계에는 그 어떤 이음새도 없이 팔찌처럼 손목을 부드럽게 감쌀 뿐이었다.

고통을 감수하고 시계를 손쪽으로 뺏기위해 밀어내는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아니 멈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멈춘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진다. 모든 시간이 현저하게 느리게 이동하는 듯하다는 감상이 느껴졌다.

소녀의 의식은 변함이 없지만 소녀의 육신은 그 의식을 따라가는데 버거워하는 것이 느껴졌다.

육체가 답답하다고 느낀 그 순간, 소녀는 의식의 부감을 느껴야 했다.

육신은 변함없는 현실시간선에 메어있지만 그녀의 의식은 그 육신을 살며시 벗어나 세상을 넓게 관조하며 바라볼 수 있게되었다. 그것은 무척이나 신비롭고 황홀한 경험이었다.

세계는 이런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

어찌보면 햇빛과도 같은 따스한 느낌이 물씬 주변을 물들이며 빛나는 무언가가 이리저리 요동치며 흐르려고 하고 있었다.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그녀가 품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여러 단어로 불리지만, 결단코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식해서 바라본 적없는 존재.

생명

수명

그리고... 시간.

너울거리는 빛줄기 일부가 소녀의 손목시계로 향하자 손목시계가 다시 전원이 켜진다.

그것은 무척이나 신비로웠으며, 일견 섬뜩했다.

전원이 오른 시계로부터 홀로그램 형식으로 경고창의 올라왔다.

[기기에 등록된 사용자의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시간 주입을 확인했습니다. 가까운 포탈을 이용하여 회사에서 사용자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고창에 떠오른 글을 읽는 것도 잠시. 해당 시계는 이내 경고창 대신 지도형태의 홀로그램으로 투영했다.

그림이 익숙하다. 지도에서 나타낸 점은 소녀의 학교가 있는 도심지 지역이다.

비록 버스를 타고 2 시간이나 가야하는 먼 거리지만...

느리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소녀는 생각했다.

소녀는 지금 행복한가?

그렇지 않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의 아빠가 그걸 위해서, 이 이상한 능력을 지닌 괴물 회사와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럼 그녀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할까?

아빠의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야 한다.

소녀는 그 방법 이외에는 떠올릴 수 없었다.

무섭고 어렵겠지만, 소녀는 각오를 다져야 했다.

챕터 1 완

Chpater 2 골목길

너무 선부른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현실감이 떨어지는 사건을 겪게 되서였을까?

손목시계가 안내하는 미묘한 이끌림에 홀렸던 걸까?

소녀는 생전 처음으로 느끼는 모험심에 보무도 당당하게 시계가 알려주는 회사의 위치로 걸어 나갔었다.

그러나 햇별은 서서히 지고 있고, 주변은 담배 빛으로 물들어 칙칙한 공포감을 조용히 상기시켰다.

소녀의 집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걸어와야 했기에 이제 와서 돌아가봐야 남은 건 옆집 아만다씨의 분노와 짜증,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계속 바쁘기만 해야 할 아빠, 그리고 변함없이 행복하지 못할 소녀만이 날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녀가 이순간 걸음을 멈추며 망설이는 이유는 그녀가 집에서 봤던 존재가 너무나 멀끔한 모습으로 그녀의 앞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소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길가의 구석에 몸을 숨긴 채 주변을 둘러봤다.

분명 양복의 사내는 집에서 본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 특이한 인상은 결코 기억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터였다.

그럼에도 주변의 그 어떤 사람도 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소녀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

다만 한가지 소녀의 기억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양복의 사내가 소녀가 차고 있는 것과 유사한 손목시계를 똑같이 착용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집에서 재가되어 사라졌던 그의 손목시계는 소녀가 갖고 있다.

그렇다면 저 손목시계를 찬 존재는 같으면서도 다른 존재이리라.

소녀의 명석한 머리는 그렇게 고해왔다.

사내가 곧 골목길로 접어 들어 가기 시작했다.

소녀는 시야에서 사내가 사라지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을 쉬었다.

깊은 안도감이 그녀의 다리 힘을 풀어버렸다.

과연 이대로 나아가는 것이 맞을까? 그냥 다른 어른들에게 말하고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소녀의 머릿속을 지나갔다.

그럼에도 소녀가 뒤돌아 집을 향하지 못하는건, 나날이 초췌해져만 가는 아빠의 얼굴과 괴물이 보여줬던 한장의 서류가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른에게 도움을 청한다 한들 누구에게 요청해야 한단 말인가?

그녀가 아는 어른 이라곤 옆집의 아만다씨를 제외한다면 학교에서 그녀의 얼굴이나 잘 기억하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선생님들 뿐이다.

뭐가 그리들 바쁘고 귀찮은 건지 사무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가르치고 이동하는 그들은 사람보다는 기계와 같다고 생각했던 소녀이기에 도움을 요청할 대상을 찾지 못했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어른들이 얼마만큼 아이들의 말을 잘 무시하는지 소녀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더군다나 소녀 스스로 아무리 되뇌며 문장을 정리해봐도 허황되게만 들리는 말을 누가 믿어 준단 말인가.

소녀가 갖고 싶은 건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소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사랑한다 속삭여주는 아빠의 얼굴이다.

그리고 그건 오직 소녀만의 소망임으로, 그것을 위할 수 있는 것은 소녀 밖에 없으리라.

숙녀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며, 소녀가 생각 할 때 지금 자신의 행동은 무척이나 숙녀다운 행위였다.

각오를 다진 그녀는 무거워진 다리를 이끌어 괴인이 들어선 골목길을 향해서 천천히 이동했다.

소녀가 이동하는 사이에도 주변 사람들은 뭐가 그리 바쁜 건지 정신없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 누구도 해가 지려고 하는 시간에 홀로 걸어 나가는 소녀에게 관심을 주는 이 없었다.

그것이 편하면서도 어쩐지 정상적인 느낌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마침내 소녀는 골목으로 들어서는 모퉁이에 도착할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안쪽을 바라보는데, 어째 서일까? 소녀의 두 눈이 당혹감으로 가득 찬다.

모퉁이 너머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대한 수거함과 그 근처에 나뒹구는 쓰레기들만이 존재할 뿐, 더이상 그 어디로도 갈 수 없도록 길이 막혀 있었다.

소녀는 혹시 자신이 잘 못 찾아 온건지 헛갈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뒤로 슬쩍 스쳐 지나가는 또 다른 괴인만 없었다면.

모퉁이에 몸 대부분을 가린채로 고개만 내밀어서 쓰레기 수거함을 바라보는 소녀의 모습은 분명 별났을 것이다.

소녀는 긴장감에 느끼지 못했던 구둣발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오자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화들짝 굳어버리고 말았다.

그때 쓰레기 통이 살짝 흔들리더니 검은 형체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흠, 고양이를 관찰하던 거였나. 하여간 어린 인간들은 하나같이 시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목소리가 한심함을 가득 담아서 흘러나왔다.

이내 다시금 구둣발 소리가 들리며 또 다른 괴인이 소녀를 지나 골목 안쪽으로 들어선다.

괴인이 막다른 길에 다다를 무렵 어쩐지 세계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오른손으로 꼭 눌렀다.

순간 세계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녀의 눈 앞에는 마치 지하철역의 통로와 같은 거대한 통로가 펼쳐져 있었다.

여러 표지판들이 각자의 방향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고,

여러 모퉁이들에서 괴인들이 나타났다가 또 다른 모퉁이로 사라지면서 이동하고 있었다.

그래, 괴인들이 그 세계에 당연하다는 듯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수 많은 괴인들이 자연스럽게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 전을 적인 광경에 멍 때리고 있으니 세상의 시간이 다시 원상태로 흘러가고 골목은 원래의 막다른 길목으로 돌아왔다.

소녀는 손목 시계를 바라봤다.

손목시계는 집에서 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곳을 가르켜왔다.

그리고 방금처럼 세상을 뒤틀어 버리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그 이적이 일어날 때마다 소녀는 자신의 소중한 무언가가 사라지는 끔찍한 기분을 맛아야 했다.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말았다.

분명 계속해서 이 힘을 쓴다면 소녀는 집에서 봤던 괴인과 같은 마지막을 맞게 될 것이란걸.

그렇다면 두 번이나 망설일 시간은 없다.

지금 이 순간 마저도 손목시계가 알려주는 시간은 계속해서 줄고 있으니까.

다시 주변에 다른 괴인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서서 손목시계의 힘을 다시 사용했다.

세상이 느려진 이상한 세계에서 뒤틀린 공간의 경계를 넘어선다.

이전의 세계에서 소녀의 존재는 당연한 존재였기에 그 누구의 관심도 주목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부터는 소녀가 가장 이질적인 존재임이 틀림없다.

떨리는 가슴과 함께 소녀의 여행이 시작되려 한다.

챕터 2 완

Chapter 3 포탈홀

무언가 잘못되었다.

골목길에서 뒤틀린 시계선을 넘어 들어온 공간은 골목길에서 얼핏 보았던 그곳과 별 차이 없어보였다.

금속재질로 이뤄진 벽면, 지하철 통로나 거대한 미군부대 격납고 같은 광활한 공간.

그러나 이 곳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이 공간은 버려진 공간이었다.

조명은 모두 꺼져 어두웠으며, 영상이 출력이 되어야할 모니터들은 고요한 침묵을 통해서 소녀를 내리누르고 있었다.

거대한 구조물에 의한 울림은 소녀의 움직임이 없다면 적막이란 커튼을 드리우며 그녀의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분명 큰 장애물이 될것이라 생각했던 회색인간들마저 이곳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어둡고 고요한 공간은, 거대한 생물의 벌려진 입처럼 어디서 온지 모를 스산한 바람만을 그녀에게 뿜어내며 속삭였다.

너는 이곳에 와선 안 되었다고.

올라오는 소름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소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이곳을 오도록 유도한 손목시계를 믿으면 안 되었던 걸까?

손목시계는 지금껏 본적 없는 녹색의 숫자들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마치 망가진 기계처럼 간헐적으로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걸까?

내심으론 몇 시간이 지난거 같은 순간이 지나서야 손목시계의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다.

순간 어둠뿐이었던 공간으로부터 붉은 빛이 점멸하며 기계적인 안내음성이 울려퍼졌다.

[미등록 기기로부터 잘못된 접근이 확인되었습니다. 보안 격리를 실시합니다.]

덜컹 가라앉는 심장은 금방이라도 멈출것만 같았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쳐보지만, 그녀가 넘어올때만 해도 있었던 공간의 뒤틀림은 이곳엔 존재하지 않았다.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속에서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목시계의 이능을 꺼내들었다.

이윽고 반전하는 세상.

은은한 금빛으로 물든 세상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목시계로 그녀의 빛이 흘러들어간다.

어느정도의 빛이 들어가기 무섭게 해제되는 세계.

식은 땀덕에 서늘한 공기를 느끼며 정신이 들었을 때, 소녀는 이 거대한 공간 정 중앙에 위치한 조명 탑을 볼 수 있었다.

사방에서 볼 수 있도록 배치된 모니터들이 천장에 붙어있는 조명탑에선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하얀 빛이 뮤지컬 극장의 스포트라이트 처럼 그 아래의 데스크를 비추고 있었다.

무기질적인 안내음성이 들린건 일부지만 돌아온 빛에 소녀의 경계심이 내려간 순간이었다.

[미등록 기기에 새로운 사용자의 자원을 확인했습니다. 신규 사용자 등록 및 격리 해제 절차를 준수하기 바랍니다.]

데스크로부터 시계에서 출력한 것과 비슷한 홀로그램이 펼쳐지며 점멸했다.

그곳에는 출근하시던 아버지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챙겨나가던 목걸이와 비슷한 디자인이 출력되고 있었다.

사원증.

그것은 그런 이름을 상단에 출력하고 있었다.

빛을 본 나방처럼 홀리듯 다가선 소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Asling Vita.

부모님이 내려주신, 그녀의 소중한 이름이 나이에 맞지 않은(아만다씨의 교육에 힘입은) 유려한 필기체로 사원증에 새겨진다.

[신규 사용자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Asling Vita. Chronos Tempus 에 입사하신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입사전 기 안내된 보안절차를 따라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데스크가 띄어준 직원증은 새로 갱신된 안내문구와 함께 손목시계로 전송된다.

홀로그램과 손목시계에 동시에 그려지는 전송바를 바라보던 그녀는 이내 사라진 홀로그램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다.

‘이게... 끝?’

다행이 조명탑의 빛은 꺼지지 않았지만, 그 덕에 더 잘보이게된 이 공간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처음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중앙을 기준으로 자신이 들어온 곳과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 좌우로도 존재했으며, 소녀의 전방에는 거대한 셔터와 같은 문이 내려져있었다.

즉, 소녀가 이 공간에 갇혔다는 사실은 변한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당황하면 안 된다. 참한 숙녀는 언제 어디서든 우아함과 여유를 잃어버려선 안 된다.

오랜 교육을 통해서 뇌리에 박힌 말이 소녀의 자세를 강제로 교정시켜준다.

올바른 자세로 서있으려니 자연히 조급함과 공포심이 약해지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그 사이로 간신히 찾아낸 여유는 두려움에 굳었던 머릴 신중하게 마사지해준다.

그녀는 곰곰이 사라졌던 안내문구를 기억해내려 애썼다.

그녀가 이 공간으로 떨어진건 보안체계에 의한 격리에 의해서라고 추론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 사라지기전 홀로그램은 분명 ‘기 안내된 보안절차’를 따라서 해결하라고 했다.

결국 소녀가 의지할 곳은 이곳에 오게해준 손목시계뿐이었다.

이제는 한결 익숙해진 새로운 세계가 그녀를 반긴다.

금빛으로 물든 세상은 어둠뿐이었던 공간을 미약하게나마 비추며 주변이 어떤 공간인지 알려준다.

아까전엔 미처 보지 못했던 요소들도 그녀의 눈에 점차 보이기 시작한다.

그녀는 홀린듯 동쪽으로 이동했다.

금빛의 세계에서 그녀는 세계의 흐름에 저항하지 못하고 의식의 흐름과는 다르게 천천히 움직인다.

그 사이 그녀의 의식은 확대되면서 동쪽 포탈로 이동 할 수 있는 터널들을 유심히 관찰할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포탈에는 의미심장한 형태의 문자들이 룰렛의 형태로 장식되어있었다.

룰렛 가운데에 위치한 버튼을 누른다면 돌아가는 형태일 듯싶었다.

해당 룰렛은 각 터널마다 1 나씩 총 4 개가 존재했으며, 각 터널들로 나뉘는 입구들 상단에는 이전에 보지 못한 문장이 고풍스러운 필체로 적혀있었다.

- 인류는 프로메테우스의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유리에 담아 인류의 시간을 배로 늘려주었다 -

수수께끼일까?

이윽고 가벼운 현기증과 함께 시간의 흐름이 본래의 형태로 돌아온다.

살짝 찾아오는 멀미를 가라앉히면서 다시 해당문구를 찾으면 그 문장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이 열린 어둠만이 차지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 금빛의 세상에서만 보이는 특수한 장치가 되어있는 듯했다.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분명 언젠가 들어본 단어다. 아니 이름인가?

소녀는 기억이 날 듯 말 듯한 애매한 상황에 자신도 모르게 눈썹을 일그러뜨렸다.

어디서 들었을까? 옆집 아만다씨? 아니 그렇지 않다. 이런 형식의 이름을 그녀의 입으로 들었던 기억은 있을 수 없다.

그럼 학교여서였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다.

답답함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그리하여 프로메테우스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몸소 신들만이 가질 수 있었던 불을 훔쳐 인간에게 주었다단다.’

그녀의 어린시절, 그녀가 조르고 졸라서 읽어달라했던 책

그리스 로마신화에 한 구절을 조곤히 읽어주던 감미로운 목소리.

마치 당장에 옆에 들려주는 듯한 추억에 잠기는 그녀의 머리가 수수께끼를 풀어갔다.

프로메테우스의 은혜, 불.

유리의 담긴 불로 인하여 배로 늘어난 시간.

돌아가는 룰렛에 따라서 룰렛이 가리키는 글자가 변한다.

L

이젠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했다.

A

이젠 빈자리가 익숙해졌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M

마마... 이젠 입에 담아보지도 못하는 단어가 소녀에게서 조심히 흘러나오려다 이내 삼켜진다.

P

파파, 미안해요. 저는 역시

“엄마가 필요한가봐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흐르는 눈물이 턱에 방울져 떨어졌다.

가벼운 진동과 함께 순식간에 밝아지는 시야.

광원의 위치를 알 수 없는 빛무리가 공간을 매워주며 이곳에 가득했던 어둠을 물린다.

비록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완전히 지우진 못하지만, 밝아진 공간은 그 것만으로도 많은 공포를 가시게 만들어준다.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면, 아빠가 슬퍼하니까.

아빠가 슬프면 나도 더 슬퍼지니까.

참고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진 독에 쏟아지는 물결처럼 토해졌다.

잠시간의 감정을 쏟아내는 시간이 지나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의 끝은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생각나게 만들어준다.

그녀의 눈동자에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차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이 가셨다.

빛이 돌아왔다.

그럼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소녀는 한층 익숙해진 걸음으로 다음 포탈 터널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움직였다.

이젠 숙달된 능력, 제 3 세계를 볼 수 있는 손목시계의 능력을 자력으로 발동시키며 힌트를 수집한다.

이곳은 유달리 그리스 신화의 힌트가 많은거 같다고 소녀는 생각했다.

엄마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녀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소녀는 묵묵히 룰렛을 돌렸다.

- 헤라의 저주를 받은 님프의 대답. 우리는 애꿎은 반향 속에서 인류에게 집중력을 선물하였다. -

애꿎은 반향이란 어구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퍼즐을 맞추면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이 돌아온다고

소녀는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곳에는 무엇이 없는 걸까?

이전 열핏 보였던 포탈 너머에선 많은 숫자의 회색인간들이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 웅성대는 대화 소리가 가득했었다.

에코, 헤라의 저주로 인하여 남의 말을 했을 때만 그 말의 끝마디를 돌려줄 수밖에 없던 가여운 님프의 이름이여.

과연, 또다시 가벼운 진동과 함께 공간에 소리가 돌아온다.

회색인간들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이 말하는 소리, 구뎃굽이 부딪치는 소리가 넓은 공동에 울리며 여기저기에 울려퍼진다.

그것은 무척이나 기괴하면서도 소녀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일 터.

그녀가 남은 퍼즐마저 무사히 풀어내니, 공간에 가득했던 디스플레이들에 전원이 들어오며 그들이 비추고자 하는 내용들이 출력되었다.

포탈이 있는 터널에서 나와 중앙의 조명타워까지 오는 통로의 디스플레이에서는 그녀가 지나온 골목길을 포함한 포탈 너머의 장소들이 어렴풋이 출력되고 있었다.

중앙 조명타워의 방향에 설치된 거대한 디스플레이에는 디지털 숫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수치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셔터로 굳게 잠겨있던 통로가 열리며 새로운 길을 비춰준다.

마지막 자물쇠가 열리고.

소녀는 본능적으로 해당 방향으로 뛰어나갔다.

이제 이곳은 소녀가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회색인간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되었으니까.

그 누구의 시선에도 걸리지 않도록, 소녀는 자신의 작은 몸을 더 웅크리면서 조심히 회사내부에 들어설 수 있었다.

- 챕터 3 완